한화투자증권

2026년 2월 4일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ETP

대형 리테일 은행 채널로 확장되는 암호화폐 ETP

▶ Analyst 최윤영 yy.choy@hanwha.com 3772-7402

ING 독일은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ETP 투자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유럽 시장에 상장된 ETP 로, ING 의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ETF 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가격 익스포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독일의 세제 환경상 암호화폐를 1 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ETP 를 활용한 암호화폐 투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간접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ETP 가 대형 리테일 은행의 증권 계좌 서비스 범위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유럽 내 리테일 자금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ING 독일, 리테일 대상 암호화폐 ETP 투자 채널 개방

ING 독일이 리테일 고객 대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에 연동된 암호화폐 ETP(ETN 포함) 투자 서비스를 개시했다. 해당 상품은 21Shares, Bitwise, VanEck 등이 발행한 ETP로 독일 및 유럽 내 규제 시장(예: Xetra 등)에 상장되어 있으며 ING의 기존 증권 계좌 서비스인 Direct Depot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ING 독일은 별도의 외부 지갑이나 프라이빗키 관리 없이 기존 주식, 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폐 익스포저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설명했다.

독일 세제 하에서 암호화폐 ETP가 직접 암호화폐 보유와 유사한 과세 체계를 적용받는 점도 리테일 투자자 입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독일에서는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직접 코인 매수와 비교해 세제상 불리함이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세제 환경을 감안할 때 ETP를 통한 암호화폐 투자는 가격 변동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공하는 간접 투자 수단으로 기능하며, 암호화폐 투자 수요가 은행 증권 계좌를 중심으로 한 리테일 자금 흐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ING 독일이 상품을 제공하면서도 암호화폐의 리스크를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ING는 암호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가격 변동성, 발행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및 규제 불확실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새로운 성장 자산으로 적극 권유하기보다는, 고객 수요에 대응해 규제된 금융상품 형태의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 리테일 은행 채널로 편입되는 암호화폐 익스포저

유럽 내에서 이미 암호화폐 ETP가 리테일 투자자 대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ING 독일의 이번 조치는 대형 리테일은행의 기존 증권 계좌 서비스 범위 안으로 해당 상품이 편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 ETP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례는 은행이 제공하는 증권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 익스포저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암호화폐가 독립적인 투자 영역을 넘어 주식, 채권, ETF 등과 나란히 배치되는 자산군으로 인식 단계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NG 독일이 유럽 은행들과 함께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규제된 금융상품 형태의 암호화폐 익스포저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 관련 인프라 논의에 참여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다른 유럽계 대형 은행들이 유사한 형태의 암

호화폐 ETP 거래 접근을 자사 증권 계좌 서비스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며, 이는 유럽 리테일 자금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 속도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 년 2 월 4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윤영)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 년 12 월 31 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7.0%	13.0%	0.0%	100.0%